

가정환경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순 옥** · 최 연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속적인 주거 및 여가환경의 개선은 삶의 만족도를 높였고, 각종 질환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해환경과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Choi, Mo, & Gang, 2011). 특히 가족의 기능성 상실이나 비정상적인 학교교육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행동을 표출하고 있으며(Han & Doh, 2008), 10세 미만의 연령층에 비해 10세 이상의 청소년이 포함된 연령층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형 장애, 기분 장애 및 자살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Kang, 2007).

청소년기는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시기로 초기 청소년기, 중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끝맺음과 청소년기

의 시작을 동시에 내포하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성적 신체로의 변화, 생리적 변화를 거치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혼란 과정에 있으며, 권위에 대한 반항, 감정의 양면성 등 정신적 불균형과 충동성 및 공격성이 증가되는 시기이다(Ko, 2012).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부적응 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보다 심각한 수준의 일탈이나 문제 상황의 유지 혹은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험요인으로 명명되기도 한다(Hong, 2006).

이러한 위험요인은 크게 개인내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개인내적 요인은 생물학적 이론 및 심리학적 원인론에 의한 것으로서 특정 장애와 관련된 유전 또는 변화가 어려운 기질 등이며, 사회·환경적 요인은 만성적 빈곤이나 역경, 외상이 되는 생활사건 또는 또래친구나 가족 등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한 타자로부터 파생되는 압력 등과 같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대구지묘초등학교 보건교사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yeonheechoi@naver.com)

투고일: 2014년 9월 4일 심사외탈일: 2014년 9월 24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22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Choi, Yeon Hee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dong, Jung-gu Daegu 700-422, Korea

Tel: 82-53-420-4926 Fax: 82-53-421-2758 E-mail: yeonheechoi@naver.com

은 것이다(Han, 2008).

환경적 위험요인 중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환경 요인이며(Yu, 2000), 일반적으로 학교부적응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나 폭력문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 간의 지속적인 부부 갈등은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고 부적응적 발달을 예측해 주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있고(Han & Doh, 2008), 부모의 관심, 가족유대감, 부모 간 갈등과 같은 가족의 심리적 기능이 낮을수록 내재화 문제의 수준이 높으며,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외현화 문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4).

많은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청소년들이 일탈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긍정적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보호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이며(Rutter, 1987),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보다 함께 작용하여 행동문제를 야기하는데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은 '매개모델(mediated model)'의 설정을 통한 경로적 인과모형을 검증함으로써 규명될 수 있다(Kim & Kim, 1999). 최근 선행연구들은 위험요인보다 보호요인의 부재가 청소년 문제행동 가능성을 높여주는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주장하고 있고(Han, 2008),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는 위험요인보다는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증명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Lee, 2009).

초기 청소년은 아동기에 비해 내적 긴장과 환경적인 압력이 더욱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환경적 위험요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장애가 유발되거나 사회적 일탈행동을 일으키게 된다(Oh, 2008). 따라서 초기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가정환경의 역기능적 작용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요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 교사, 또래관계 등을 포함한 사회적지지(Yoon & Ryu, 2007) 등이 있고,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Han & Doh, 2008) 등이 있다. 가정환경 위험요인은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개인내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Shin, 2008),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변인들이 병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개인내적 요인이 매개하여 외적요인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Jang & Shin, 2006).

이처럼 기존 연구들에서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요인의 매개효과에 대해 밝혀왔으나, 중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첫째, 가정환경 위험요인은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가정환경 위험요인은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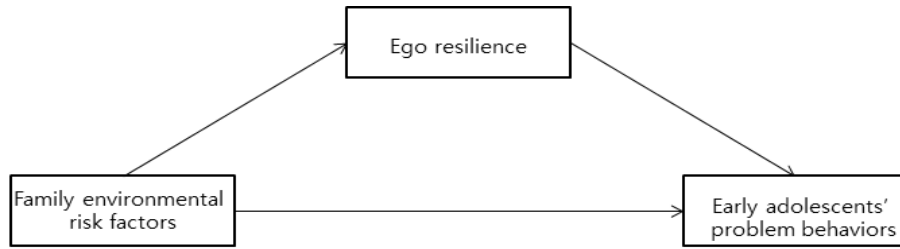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정환경 위험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즉,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부분매개모형이다 (Figure 1).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D광역시에 소재한 40개 초등학교 중에서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5개 초등학교를 추출하여, 각 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K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승인(IRB-2013-0084)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연구의 목적, 방법,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로 인한 위험요소가 없음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서면 동의 하에 진행되며, 연구 진행 중 언제든지 참여철회가 가능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사항도 비밀보장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보호자의 서면동의서를 함께 제출한 450명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인 G*Power 3.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5% 유의집단과 80% 검정력, 모형예측요인

3개로 한 경로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230명으로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연구 도구

1) 가정환경 위험요인

가정환경 위험요인이란 청소년이 다른 또래 청소년에 비해 발달상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높아지도록 하는 가정 환경적 특성 및 변인으로 정의하며, 가족분위기와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 정도를 기초로 하여 Ji, Lee, Lee, Choi와 Jung (2001)이 개발한 척도에서 획득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 척도는 엄격, 학대, 가정불화, 편애/무관심, 대화부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3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867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이란 청소년이 환경적 위험요인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서 및 행동으로 표출되는 문제행동을 완화시켜주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정의하며, Park (1997)이 개발하고 Shin (2004)이 재구성한 척도에서 획득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7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917로 나타났다.

3)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

Ko (2012)는 청소년을 초기 청소년, 중기 청소년, 후기 청소년으로 나누고, 초기 청소년기를 대략 11~14세로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Ko (2012)의 정의에 근거하여 11~14세까지를 초기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이란 초기 청소년이 그들의 생활환경 속에서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며, Achenbach (1991)가 개발하고 Jang (2001)이 재구성한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자기보고형에서 획득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 척도는 내재화 문제행동(불안/우울, 사회적 위축)과 외현화 문제행동(비행, 공격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2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문제행동이 심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915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첫째, 신뢰도 검사를 통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와 측정도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측정도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넷째, 측정도구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다섯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모형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231명(51.3%), 여학생이

219명(48.7%)이었고, 학년 분포는 5학년이 217명(48.2%), 6학년이 233명(51.8%)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316명(70.2%), 보통이 122명(27.1%), 불만이 12명(2.7%)이었다. 학교성적(최근 1년)은 중간 이상이 240명(53.3%), 중간이 164명(36.4%), 중간 이하가 46명(10.2%)이었다. 친구관계는 사이가 좋음이 303명(67.3%), 보통이 136명(30.2%), 사이가 좋지 않음이 11명(2.4%)이었다. 부모와 동거여부에서는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학생이 408명(90.7%), 편부모와 살고 있는 학생이 42명(9.3%)이었다. 가정생활만족도에서는 만족이 376명(83.6%), 보통이 59명(13.1%), 불만이 15명(3.3%)이었다. 부모와의 관계는 사이가 좋음이 342명(76.0%), 보통이 96명(21.3%), 사이가 좋지 않음이 12명(2.7%)이었다. 가정경제수준은 중이 370명(82.2%), 상이 68명(15.1%), 하가 12명(2.7%)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환경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환경 위험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성적, 친구관계, 가정생활만족도, 부모와의 관계, 가정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자가($t=1.988, p<.05$), 학년에는 6학년이($t=-2.933, p<.01$), 학교생활에 불만족인 학생이($F=13.302, p<.001$), 학교성적이 안 좋을수록($F=3.152, p<.05$), 친구관계가 안 좋을수록($F=9.574, p<.001$), 가정생활에 불만일수록($F=56.570, p<.001$),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을수록($F=75.569, p<.001$), 가정경제수준이 중 이상에 비해 하인 경우($F=10.855, p<.001$) 가정환경 위험요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F=3.360, p<.05$), 가정생활만족도가 보통인 경우에 비해 불만이거나 만족일 경우($F=4.144, p<.05$),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F=5.809, p<.01$)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성적, 친구관계, 가정생활만족도, 부모와의 관계, 가정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는 6학년 이($t=-5.183, p<.001$), 학교생활에 불만족인 학생이 ($F=23.408, p<.001$), 학교성적이 안 좋을수록($F=6.924, p<.01$), 친구관계가 안 좋을수록($F=11.909, p<.001$), 가정생활에 불만일수록($F=34.866, p<.001$),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을수록($F=34.566, p<.001$), 가정경제수준이 중 이상에 비해 하인 경우($F=7.843, p<.001$)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1).

3. 가정환경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가정환경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측정도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가정환경 위험요인은 자아탄력성 ($r=-.436, p<.001$)과는 부적상관관계,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r=.593, p<.001$)과는 정적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탄력성은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r=-.531, p<.001$)과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2).

4. 매개모형 경로분석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아탄력성을

Table 1. Differences in the Risk Factors of the Family Environment, the Ego Resilience and the Problem Behaviors of the Early Adolescents

| Variables | Distinction | FERF | | ER | | EAPB | |
|----------------------------------|--------------------------------|-------------------------|-----------|------------------------|---------|------------------------|-----------|
| | | M±SD | t/F | M±SD | t/F | M±SD | t/F |
| Gender | Male | 1.45±.51 | 1.988* | 3.16±.48 | -.823 | 1.69±.46 | .158 |
| | Female | 1.37±.41 | | 3.22±.32 | | 1.69±.46 | |
| Year | 5 th grade | 1.35±.40 | -2.933** | 3.21±.48 | .366 | 1.58±.44 | -5.183*** |
| | 6 th grade | 1.47±.51 | | 3.18±.38 | | 1.80±.46 | |
| Satisfaction in school life | Unsatisfied | 1.66 ^b ±.70 | 13.302*** | 3.04 ^a ±.91 | 3.360* | 1.97 ^b ±.64 | 23.408*** |
| | Medium | 1.57 ^{ab} ±.52 | | 3.09 ^a ±.31 | | 1.90 ^b ±.48 | |
| | Satisfied | 1.34 ^a ±.41 | | 3.29 ^b ±.41 | | 1.60 ^a ±.41 | |
| School record (Last one year) | Lower than the middle | 1.55 ^b ±.48 | 3.152* | 3.14±.43 | 1.153 | 1.93 ^a ±.49 | 6.924** |
| | Middle | 1.43 ^a ±.51 | | 3.13±.32 | | 1.67 ^a ±.42 | |
| | Higher than the middle | 1.37 ^a ±.43 | | 3.26±.47 | | 1.66 ^a ±.47 | |
| Relationship with friends | Good | 1.35 ^a ±.42 | 9.574*** | 3.28±.44 | 2.578 | 1.62 ^a ±.43 | 11.909*** |
| | Medium | 1.55 ^b ±.51 | | 3.09±.30 | | 1.84 ^b ±.47 | |
| | Bad | 1.55 ^b ±.53 | | 3.24±.93 | | 1.88 ^b ±.68 | |
| Cohabitation status with parents | Cohabitation with both parents | 1.41±.46 | -.060 | 3.17±.41 | -1.247 | 1.70±.46 | .916 |
| | Cohabitation with one parent | 1.42±.50 | | 3.34±.41 | | 1.63±.44 | |
| Satisfaction at home | Unsatisfied | 2.03 ^b ±.78 | 56.570*** | 3.35 ^b ±.51 | 4.144* | 1.97 ^b ±.51 | 34.866*** |
| | Medium | 1.84 ^b ±.60 | | 3.03 ^a ±.36 | | 2.09 ^b ±.48 | |
| | Satisfied | 1.32 ^a ±.36 | | 3.26 ^b ±.40 | | 1.62 ^a ±.42 | |
| Relationship with parents | Good | 1.28 ^a ±.31 | 75.569*** | 3.35 ^b ±.49 | 5.809** | 1.60 ^a ±.40 | 34.566*** |
| | Medium | 1.84 ^b ±.58 | | 3.08 ^a ±.32 | | 2.00 ^b ±.52 | |
| | Bad | 1.72 ^b ±.77 | | 3.02 ^a ±.09 | | 1.86 ^b ±.54 | |
| Economic level of the family | High | 1.38 ^a ±.48 | 10.855*** | 3.29±.55 | 1.030 | 1.61 ^a ±.51 | 7.843** |
| | Medium | 1.40 ^a ±.44 | | 3.16±.36 | | 1.69 ^a ±.44 | |
| | Low | 2.01 ^b ±.78 | | 3.32±.59 | | 2.17 ^b ±.53 | |

*** $p<.001$, ** $p<.01$, * $p<.05$.

ER=Ego resilience; EAPB=Early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FERF=Family environmental risk factors

Table 2. Correlation among Family Environmental Risk Factors, Ego Resilience and Early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 | FERF | ER | EAPB |
|------|---------------------------|---------------------------|----------|
| FERF | 1 | | |
| ER | -.436***(<i>p</i> =.000) | 1 | |
| EAPB | .593***(<i>p</i> =.000) | -.531***(<i>p</i> =.000) | 1 |
| M±SD | 1.41±.46 | 3.51±.51 | 1.69±.46 |

****p*<.001, ***p*<.01, **p*<.05.

ER=Ego resilience; EAPB=Early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FERG=Family environmental risk factors

Table 3. Parameter Estimates for Mediated Model

| | | | | S.Estimate | Estimate | S.E. | C.R. | <i>P</i> |
|----------------|------|------|------|------------|----------|-------|-----------|----------|
| Mediated model | ER | <--- | FERF | -0.436 | -0.478 | 0.047 | -10.27*** | .000 |
| | EAPB | <--- | ER | -0.336 | -0.305 | 0.035 | -8.59*** | .000 |
| | EAPB | <--- | FERF | 0.447 | 0.445 | 0.039 | 11.43*** | .000 |

****p*<.001, ***p*<.01, **p*<.05.

ER=Ego resilience; EAPB=Early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FERG=Family environmental risk factors

Table 4. Path Analysis of Mediated Model

| | | | | Direct effect |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 |
|----------------|------|------|------|---------------|-----------------|--------------|
| Mediated model | ER | <--- | FERF | -.436* | - | -.436* |
| | EAPB | <--- | FERF | .447* | .146* | .593* |
| | EAPB | <--- | ER | -.336* | - | -.336* |

****p*<.001, ***p*<.01, **p*<.05.

ER=Ego resilience; EAPB=Early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FERG=Family environmental risk factors

매개변인으로 한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매개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매개모형에서 가정환경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해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보았고, 가정환경 위험요인과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에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매개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0.447,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0.146으로 나타나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가정환경 위험요인과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에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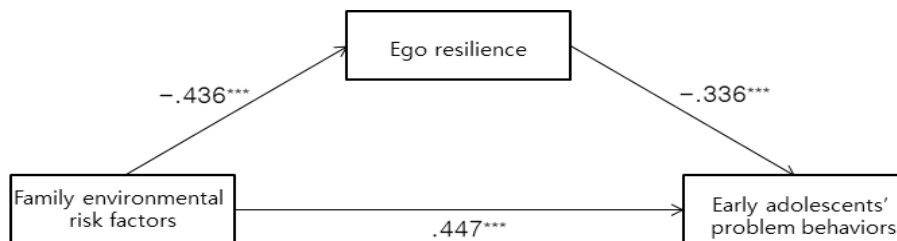


Figure 2. Path Analysis of Mediated Model

이 매개효과의 크기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6.617$,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환경 위험요인 및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성적이 안 좋을수록, 친구관계가 안 좋을수록, 가정생활에 불만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을수록,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가정환경 위험요인과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 둘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환경과 학교요인이 좋을수록 정신건강이 좋다고 밝힌 Choi (2004)의 연구,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문제행동이 많다고 밝힌 Ahn (2001)의 연구,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친구관계가 원만할수록 정신건강이 좋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교환경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힌 Jeong (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가정환경의 위험요인이 높은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초기 청소년들에게 문제행동이 다발할 수 있음을 추이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밝힌 Oh (2008)의 연구, 가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도 높다고 밝힌 Min (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 학교의 건강한 심리적 환경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셋째, 가정환경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정환경 위험요인은 자아탄력성과는 부적상관관계,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과는 정적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탄력성은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과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건강성을 양호하게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정신건강도 양호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도 양호하다고 밝힌 Min (2007)의 연구,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며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밝힌 Jung (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는 건강한 가정환경과 자아탄력성이 초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넷째, 가정환경 위험요인과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 간에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0.447,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0.146으로 나타나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가정환경 위험요인과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에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떨어지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고 밝힌 Park (2012)의 연구, 개인내적 요인 중 자아탄력성은 부모양육태도 및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매개변인이라고 밝힌 Cho (2006)의 연구,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의 질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Han과 Doh (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는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적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초기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가정환경의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가정환경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가정의 건강한 심리적 환경조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갈등관리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같은 정의적 발달이 초기 청소년기에 시작되므로(Lee & Yoo, 2012),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초기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이 중후기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 초기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적 개입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입 즉,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정환경 위험요인과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에 매개변인으로서 자아탄력성을 선택하여 검증하였으나, 가정환경 위험요인과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매개하거나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hn, C. H. (2001). *A study on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to problem behaviors of the te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Lee, J. A. & Yoo, I. Y. (2012). Factors influencing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in higher grade students at a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1) 547-560.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2.547>

Cho, G. Y. (2006).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ego-resiliency,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parenting behavior, family strength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Masan.

Choi, I. J., Mo, S. H., & Gang, J. H. (2011). *Research support programs for mental health promo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Choi, O. S. (2004). *A study on the effects of individual traits,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s on the mental health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Han, H. A., Doh, H. S. (2008). The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ego-resilience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1), 87-101. <http://dx.doi.org/10.5723/kjcs.2008.29.1.87>

Han, S. C. (2008). Korean society and educational achievement: The flipside of achievement -delinquency among Korean adolescents: Exploration 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adolescent runaway.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4(1), 273-298.

Hong, E. S. (2006).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41(2), 45-67.

Jang, D. H. (2001). *Intervention of social work services on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Daegu University, Kyungbuk.
- Jang, J. A., & Shin, H. C. (2006).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s maladaptation: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8*(3), 569-592.
- Jeong, S. B.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family function and mental health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a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 Ji, S. H., Lee, E. G., Lee, J. E., Choi, S. M., & Jung, C. S. (2001). Longitudinal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I-Focusing on juvenile delinquency protective factors/risk factor scale validation. *Journal of Korean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30*(2), 58-70.
- Jung, E. O. (2006). *A validation of psychological resilience sc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Kang, E. J. (2007). Korean children's mental health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28*, 60-72.
- Kim, S. H., & Kim, K. Y. (1999). The causal relationship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 and the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7*(1), 155-166. <http://dx.doi.org/10.7466/jkhma.1999.17.1.155>
- Kim, Y. J. (2004). *Psychological adjustment for risk factor and protective factor of runaway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o, Y. H. (2012). The analysis of needs for development of early adolescence adaptation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8*(2), 233-262.
- Lee, J. S. (2009). A study on the protective factors of adolescent delinquency: Focus on the effects of moderator and suppressor.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11*(4), 281-300.
- Min, D. I. (2007).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school life health and ego-resilience on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 Oh, H. J. (2008). *Parent-child communication recognized by child and child's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 Park, E. H. (1997).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resiliency, IQ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Park, S. W. (2012). *Relations among daily stress, ego-resilience, hope and social support affecting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http://dx.doi.org/10.1111/ajop.1987.55.316>
- Shin, J. H. (2008).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self-control and the environment variables about the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Shin, J. Y. (2004).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ren on ego-resilience of students in middl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Daegu.
- Yoon, H. M., & Ryu, N. M. (2007). Effects of family functio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3, 215-236. <http://dx.doi.org/10.16999/kasws.2007.33.215>

Yu, S. K. (2000). What makes differences for Korean juvenil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8(3), 81-106.

Influences of Family Environment Risk Factors and Ego Resilience on The Early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Lee, Soon Ok (School Nurse, Jimyo Elementary School)

Choi, Yeon He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irect influences of the risk factors of the family environment on the problem behaviors of early adolescents, and the indirect influences of the same by the mediation of ego resilience. **Method:** After random extraction of five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D metropolitan city, we conducted a survey of 5th and 6th-grade male and female students. For the analysis, we used data from the questionnaire results of 450 students. For the data analysis, we performed t-test of independent samples, one-way ANOVA, path analysis and Sobel test, utilizing SPSS/WIN 19.0 program. **Result:** The direct influence of the risk factors of the family environment on the problem behaviors of the early adolescents was 0.447, while the indirect influence by the mediation of ego resilience was 0.146.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risk factors of the family environment not only exert direct influences on the problem behaviors of early adolescents, they also have indirect influences on the problem behaviors of early adolescents by way of the mediation of ego resilience.

Key words : Risk factors, Resilience, Adolescent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